태양절 **김일성**광장에서

류드밀라 아브제예바(로씨야)

1

세상에 태양절과 같은
경사스러운 날이 또 어디있으랴
미인같이 아름다운 조선에
사랑의 대문 열리듯 태양절 아침이 밝았다

명절을 경축하는 사람들
김일성광장으로 모여든다
손에 손에 꽃다발을 들고
얼굴마다 승리자의 웃음 비꼈다

위대한 수령들의 계승자 **김정은**동지
힘찬 목소리로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세계가 우러르는 열병식주석단엔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함께 서계시는듯

수십만의 군중들 한덩어리되여
격정에 넘쳐 웨친다《만세!》,《만세!》
조선은 보여주었다
자기의 강대함을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주는 열병식
지축을 울리며 열병종대들 나아간다
악착한 원쑤들 감히 범접못하는
이것이 조선의 힘 선군조선이다

김일성. 김정일 두 분의 수령들
초상화에서 내려다보신다
장엄한 주악속에 시위대렬이 나간다
새들도 지저귀며 하늘을 날아옌다

노래속엔 아름다운 희망이 담겨져있어라
원쑤들 이 땅을 못다친다고
누구나 확신하고있어라
정다운 평양의 존엄은
온 누리에 빛난다

늠실대며 흐르는 강물과 같이
광장엔 흘러 흐른다 춤물결. 꽃물결이
환희의 음악속에 하나의 숨결이 맥박친다
수많은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 숨결도 한결같아라

화려한 옷들엔 하늘의 은하수 내려앉은듯
춤을 추는 그 모습 황홀하여라
외국인인 나도 기쁨에 겨워 어깨춤 추는데
볼을 적시며 내리는 눈물 감출수 없어라

언어와 피부색이 상관없는 여기
한번 손을 잡으면 모두가 형제로 되는 여기
푸르른 하늘가에 붉은기 날린다
황홀한 군중시위는 하나의 거대한
예술화폭 같아라

아름다운 나라
슬기로운 민족
조선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굳세여진다

날이 저물자 솟구치며 오르는 축포들
봄의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누나
김일성광장에 이 세상의 모든 축복
뿌려주는듯 싶구나

하늘땅은 들썩이고 내 심장은 울렁인다
쏟아지는 눈물 억제할수 없어라
친선과 평등, 사랑과 행복
이 모든것을 안고 있는 조선이여 번영하여라

(태양절은 세기를 이어 계속된다)